

양성평등에 관한 글을 쓰려고 새 문서를 열었다.

그런데 첫 문장을 쓰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누군가의 성차별적인 말을 멋지게 바로잡은 적도 없고, 가족이나 직장에서 오래된 역할을 바꾸어 놓은 경험도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만한 특별한 ‘실천 사례’가 내게는 없는 것 같았다.

한동안 깜빡이는 커서만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양성평등을 특별한 사건에서만 찾고 있었을까.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그것을 바로잡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달라지는 이야기. 그런 일이 있어야만 평등을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곳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가 평소 별생각 없이 사용하고 지나쳤던 말들을 떠올려 보았다.

여직원.

남자 간호사.

여자 운전자.

남자 보육교사.

모두 익숙한 말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성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원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문장에서도 ‘여직원’이라고 하고, 간호사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이야기와 관계없는 순간에도 ‘남자 간호사’라고 부를 때가 있다.

그렇다면 한번 지워 보면 어떨까.

여직원은 직원이 되었다.

남자 간호사는 간호사가 되었다.

여자 운전자는 운전자가 되었다.

남자 보육교사는 보육교사가 되었다.

아무것도 부족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더 먼저 보였다.

그때부터 문장을 쓸 때 작은 질문 하나를 떠올리기로 했다.

“이 사람의 성별이 지금 이 문장에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쓰면 된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먼저 꺼내 놓지 않아도 된다.

고작 몇 글자를 덜 쓰는 일이다.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사소하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고정관념 역시 언제나 거창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남자는 원래 그래.”

“여자니까 그렇지.”

“남자가 그것도 못 해?”

“여자가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짧은 말 몇 마디면 충분하다.

그런 문장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누군가에게 어울리는 일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대신 정해 버린다. 무엇을 잘할지 알기도 전에 성별부터 보고 가능성을 짐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반대 방향의 변화도 작은 문장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성별부터 떠올리지 않는 것.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남자니까’, ‘여자니까’ 라는 말을 먼저 붙이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이름표라면 잠시 내려놓는 것.
물론 모든 성별 표현을 지우자는 뜻은 아니다. 차이가 중요한 순간에는 차이를 말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않은 순간까지 사람보다 성별을 먼저 꺼내 놓을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는 것.
내가 찾은 평등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다.
처음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양성평등에 관해 내세울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빈 화면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하지만 글을 쓰며 몇 개의 단어를 지우고 나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실천은 언제나 대단한 사건 뒤에 붙는 이름이 아닐지도 모른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말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당연하게 붙였던 이름표 하나가 정말 필요한지 묻는 것.
필요하지 않다면 조용히 떼어 내는 것.
내가 오늘 한 일은 몇 글자를 지운 것뿐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성별을 지웠는데, 사람이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제야 사람이 보였다.
직원이 남았다.
간호사가 남았다.
운전자가 남았다.
보육교사가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남았다.